

## 열정으로 이끄는 강의

이 만 우 고려대 경영대 교수

*"To teach is to touch a life."*

가르침이란 한 사람의 생명에 다가가는 것이다.

*"To learn is to feel the life."*

배움은 그 생명을 느끼는 것이다.

### 1. 들어가며

남의 떡이 더 커 보이고 남의 꽃밭의 장미가 더 예뻐 보이기 마련인가 보다. 남이 가르치는 과목은 쉽고 재미 있어 보이는데 내가 가르치는 회계학은 왜 이렇게 어렵고 따분한지 모를 일이다.

회계학이 사회과학 분야의 여러 과목 중에서 가장 배우기 어렵다는 악명은 이미 학생들 사이에 널리 퍼져있다. 다른 과목은 처음에는 쉽다가 점점 어려워지는 반면에 회계학은 처음부터 숨가쁜 언덕을 만나게 되고 이를 넘지 못하면 더 이상의 진전이 어려운 특이한 과목이다.

필자가 대학에 입학한 1973년에 처음 배우기 시작하여 1976년에는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하고 거의 30년 가까이 회계와 씨름하면서 살았지만 회계원리를 처음 설명할 때에는 인간의 나약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된다. 그래서 회계원리를 가르치는 학기의 첫날은 일년에 단 한

번 새벽기도에 나가곤 한다.

회계원리를 처음 대하는 학생의 눈높이에서 쉽게 알아챌 수 있도록 설명하기 위해서는 몇 주일 동안 머리속에서 몇번씩이나 모의수업을 수행한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더 열심히 구상한 학기에는 학생들이 훨씬 쉽게 더 잘 깨우치게 된다는 점이다. 그런 반면 바쁜 일정에 쫓들려, 준비하지 못하고 강의실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웬지 말이 헛돌고 학생들의 표정에 맥이 풀린 것을 볼 수 있다. 매번 새로운 자세로 새롭게 준비하기 위하여 회계원리 강의안은 학기가 끝나자마자 깨끗이 찢어 쓰레기통에 버리고 있다. 혹시 욕심을 가지고 보관해 둘 유혹을 받을 경우를 대비해서 주위 사람들에게도 발견 즉시 없애버리라고 일러 두었다.

선생에게 가장 큰 즐거움은 학생들이 모르고 있는 것을 가르쳐 주는 일이다. 얼마나 잘 가르쳤는가 학생들의 표정에서 쉽게 읽을 수 있다. 강의를 시작할 때에는 학생들은 교과에 대한 두려움과 호기심으로 굳은 표정을 짓고 있게 마련이다. 그러나 열심히 준비하여 열심히 설명하면 강의를 진행하는 동안 그들의 표정이 점점 밝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수업이 끝났을 때 학생들끼리 이해한 것을 서로 주고 받으며 즐겁게 강의실 문을 나서는 것을 보면서 선생으

로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맛보게 된다. 학생들이 나누는 말소리가 나에게 '천사의 음성'으로 들린다. 마이크를 쓰는 대형강의실에 수백명의 학생들을 모아놓고 강의하는, 이와 같이 열악한 교육환경에서는 특히 선생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학생들의 맑은 눈을 떠올리며 강단에서 목숨을 건다는 각오를 매일 새롭게 하고 있다.

## 2. 강의실에서

회계원리는 강의실에서 승부를 걸어야 한다. 강의실에서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다른 방법으로 학생들을 보충시키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다. 고려대학교에서는 경영학과뿐만 아니라 다른 학과학생들도 회계원리과목을 많이 수강한다. 배학기 강좌당 수강인원이 3백명이 넘는다.

대형강의에서는 전반적으로 학생들의 반응을 계속 살펴가면서 말하는 속도와 강약 및 강의의 난이도를 조정해 나가야 한다. 나의 경험을 근거로 하여 강의실에서 중점을 두어야 할 사항을 몇 가지 제시하기로 한다.

### 1) 강좌마다 독립된 주제로 강의

매일 50분 강의를 독립된 강좌로 보고 논리적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 강의시간마다 기본적으로 무엇을 설명할 것인지를 먼저 밝히고 그 내용을 설명하고 끝으로 무엇을 설명했는지를 요약하여 끝을 맺는다. 나의 경우 혹시라도 잊어버릴까봐 강의소개, 강의, 강의요약이라는 세 줄 짜리 메모지를 들고 다닌다.

학생들의 신뢰를 가장 떨어뜨리는 선생님의 말은 "어디부터 시작할 차례지?" 하는 바보같은 질문이다. 그런 질문은 학생들이 보기에는 선생은 강의내용에 대한 준비는 전혀 없이 몸만 강의실에 들어왔다는 자백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회계원리과목은 회계절차가 계속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연계성을 이해시켜야 한다. 그러나 어제 풀다

중단한 문제를 계속 풀어나가는 듯한 방식은 회계순환과정의 연계성을 이해시키는 데 도움을 주지 못한다. 회계원리의 구조를 전반적으로 설명하고 그날 강의는 어느 부분을 다룬다는 설명과 함께 그날 다룰 분야를 떼내어서 강의하고는 강의 끝 무렵에는 전체구조를 다시 결합시킬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회계는 '거래가 발생되면 이를 분개하여 총계장 원장에 전기하고 잔액을 계산하여 수정전 시산표를 작성하고 수정사항을 찾아내어 수정분개를 수행하고 나서 다시 총계장 원장에 전기한 다음 수정후 시산표를 작성하고 이로부터 재무제표를 작성한 후 결산분개하고, 결산분개를 총계정 원장에 전기하고 장부를 마감한 후 결산후 시산표를 작성하는 과정이다' 라는 점을 소개하고 그날의 강의할 부분은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히 밝히고 강의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 2) 문제의 구성

회계원리는 문제풀이가 중심이 되며 강의용 예제를 많이 활용하게 된다. 강의에 사용할 예제는 미리 만들어오기 보다는 강의실에서 자연스러운 상황을 제시하여 구성하고 이를 풀어나가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다.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문제가 구성되는 과정에 대한 이해와 함께 현장에서 만들어진 문제가 풀리는 희열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서 손으로 받아쓰는 세 가지 기억 수단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다.

회계원리과목에서 매회 풀어놓은 정답을 환등기로 보여주는 것은 학생들의 이해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눈으로 보고 넘길 것이 아니라 함께 생각하며 이해해서 따라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 3) 학생들의 피드백

문제를 구성함에 있어서 시사성이 있는 예제를 쓰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최근에 부채비율 200%의 달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부채비율 관련 자료를 주고 현재의 부채비율을 계산하고 어떻게 하면 부채비율 200%를 달성할 수 있는지의 방법을 예제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개별기업의 탈세사건의 예를 들고 장부를 속이지 않았다면 재무제표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설명하면 학생들의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다.

학생들로 하여금 예제에 사용될 문제를 만들어 오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는 우수한 학생의 지적 호기심을 유발하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대형 강의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학생들과의 질의응답이 부자유스럽다는 것이다. 대형 강의실에서는 학생들이 의욕이 떨어지기가 쉽고 문답식 강의는 거의 불가능해진다.

여건이 어려운 대형 강의라 하더라도 학생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해서는 적절한 질문을 던져야 한다. 이 경우에는 앞줄에 앉은 학생을 지명하여 대답하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앞줄에 앉은 학생들은 수업참여동기가 더 높기 때문에 적절한 대답을 제시할 가능성이 더 높은 편이다.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학생들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도 학생들의 강의참여의욕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다. 특히 정확한 대답을 하는 학생은 이름을 기억했다가 이름을 불러 질문을 하는 것이 동기유발에 도움이 된다.

#### 4) 시사적 사회문제의 접근

회계원리는 비교적 시사적 문제를 다루기가 쉽다.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부채비율, BIS비율, 순환출자, 결합재무제표 등 회계와 관련된 용어가 시사적으로 많이 등장하고 있다. 강의 당일 신문에 게재된 기사내용을 알기 쉽게 분석해서 설명하면 학생들의 관심이 매우 높아진다. 주제에 따라서는 비판도 곁들여 설명한 다음 인터넷 기사검색을 이용하여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리포터를 제출하도록 한다면 학생들의 분석능력과 비판능력을 길러 줄 수 있다.

시사문제를 너무 자주 다루게 되면 강의흐름이 부자연

스러워지고 강의진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일주일에 한가지 주제씩 다루어 나가면 적절한 비중의 시사성 있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

### 3. 과제물 평가

회계원리는 강의시간에 다른 문제를 스스로 반복해서 풀어보아야 명확한 이해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회계원리과목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과제물 운용이 매우 중요하다. 수강생이 많은 경우 과제물의 수집 및 채점에 어려움이 따른다. 대형 강의에 적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과제물 운영방법을 경험을 토대로 하여 제시하기로 한다.

#### 1) 과제물의 분량과 시기

과제물은 상당한 분량을 짧은 기간에 집중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다. 회계원리는 그 성격상 집중적으로 시간을 투입하여 공부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따라서 학기초나 연휴기간 동안 상당한 분량의 숙제를 집중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추석연휴는 다른 과목의 간섭을 받지 않고 숙제하기 좋은 기간이다. 이번 학기의 경우 추석연휴 기간 중에 70시간 정도 소요되는 숙제를 1주일 기간으로 제시하여 큰 효과를 본 바 있다. 숙제는 학기당 4회 정도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너무 자주 부과할 경우 매번 과제물의 비중이 너무 낮아져서 숙제제출을 포기하는 학생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매번 숙제마다 전체 평점의 5%에서 10%사이의 상당한 비중을 두어 학생들이 포기하여 넘기지 않도록 유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 2) 과제물 양식 및 제출 기한

우리 나라 학생들은 남에게 과제물을 보여주고 남의 것을 베끼는 데 대한 죄의식이 거의 없는 편이다. 더구나

숙제를 잘 보여주는 것이 의리로 느끼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숙제 베끼기를 방지하기 위해 두꺼운 노트에다 숙제를 하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리고 제출기한은 마감일 오전 9시로 하는 것이 좋다. 특히 주말에 마친 숙제를 월요일 오전 9시까지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다. 과제물을 기한보다 일찍 제출하면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을 사용하면 숙제를 끝내자마자 제출하여 다른 학생에게 보여줄 기회를 차단할 수 있다. 노트로 숙제를 할 경우 다른 학생에게 보여주기 위해 복사하는 경우가 있는데 적발될 경우에는 특히 엄벌할 것을 미리 밝혀두어야 한다.

### 3) 과제물 채점

많은 수강생의 과제물을 채점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나의 경우에는 대학원 지도학생 중에서 공인회계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휴일날 이들을 소집하여 함께 채점한다. 그리고 숙제를 제출한 시점이 비슷한 학생들의 숙제를 면밀히 검토하여 베낀 학생을 적발해 낸다.

적발한 학생의 처벌은 쌍벌주의로서 베낀 학생과 보여준 학생을 모두 처벌한다. 처벌방법은 교내 운동장 10바퀴를 뛰도록 하는 것인데, 필히 정문수위실에서 확인서를 받아오도록 하고 있다. 학생들이 운동장을 뛰는 것은 매년 관례화 되어 있고 학생들의 제보에 의해 일간지와 방송에서 소개된 바 있다. 또한 베낀 숙제는 0점 처리하는 것은 물론이다.

## 4. 종합 성적평가

학생들에게 적합한 성적평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회계원리 과목은 성격상 과제물 비중을 높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 나의 경험으로는 과제물 30점, 중간고사 30점, 기말고사 40점 정도가 적절한것

으로 보인다.

중간고사는 회계원리의 기초를 이해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문제풀이 중심으로 출제하는 것이 좋다. 중간고사는 가능한 한 빨리 채점하여 학생들에게 돌려주어 학생들의 동기를 유발하도록 해야 한다. 가급적이면 중간고사 기간이 끝난 첫 수업시간에 시험지를 나누어주는 것이 좋다. 시험지를 돌려주고 나면 채점에 이의가 제기 되는데 모든 이의는 문서로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이의제기를 줄일 필요가 있다.

기말고사는 최종성적과 직결되기 때문에 채점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확보가 중요하다. 따라서 시험문제에 정성만 깃들여 질 수 있다면 객관식 시험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객관식 시험의 경우 공인회계사 시험이나 세무사 시험 등의 국가고시 유형과도 동일한 5지 선다형 문제가 보다 적절할 것이다.

객관식 시험은 부정행위가 개입될 여지가 많이 있다. 따라서 문제지와 답안지 양식을 3배수 정도 다르게 하여 시험을 치는 것이 합리적이다. 평가방법에 있어서의 통제가 철저해야만 학생들이 신뢰하여 열심히 공부할 수 있을 것이다.

회계원리 과목은 다른 과목보다 대리시험을 치르는 사례가 훨씬 많다. 과목내용이 표준화되어 있어서 담당교수와 상관없이 실력만 갖추면 어느 시험문제도 풀 수 있는 과목이다. 따라서 대리시험을 치르는 사례가 많이 적발된다. 이와 같은 대리시험을 적발하는 방침을 철저히 밝히고 사전에 경고하여 학생들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다. 대리시험을 사후에 발견할 수 있도록 필적을 남겨둘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객관식 답안지 하단에 본인임을 서약하는 서약서를 쓰게 하여 필적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다.

회계원리 과목은 기본적 원리를 이해한 사람과 이해하지 못한 사람의 구분이 비교적 분명하다. 따라서 연결되는 고급과목을 수강할 기본지식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F학점을 부여하는 것이 좋다. 나는 30%정도의 학생에

게 F학점을 부여한다. 교수발령을 받은 첫 학기에는 수강생 4백명 중에서 65%에게 F학점을 부여하기도 했다.

F학점이란 그 학생의 미래를 생각해서 부여하는 학점이다. D학점을 주면 다시 안 볼 학생도 F학점을 주면 다시 만나야 한다. 그래서 나는 F자는 Future의 첫글자에서 따온 것으로 믿고 있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 기말고사는 채점의 공정성이 보장되는 객관식으로 출제하고 미리 F학점을 주는 커트라인을 발표해 두는 것이 좋다. 학생들이 이에 따라 더 열심히 공부할 것이며 성적부여 결과도 기꺼이 수용할 수 있게 된다.

## 5. 맺음말

대학교수는 자기가 담당하는 과목에서 학생들의 흥미를 북돋워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 내가 담당하는 회계학 과목은 특히 삶과 직결된다. 벌써 10여 년을 가르치다보니 재자들 중에서 공인회계사 자격을 딴 사람만 해도 7백명이 넘는다.

강릉·광주·울산 등에서 올라온 피죠회 보였던 새내기들이 이제는 공인회계사가 되고 결혼해서 아이를 안고 연구실에 들를 때에는 한없는 보람을 느낀다. 수업시간에 그런 졸업생들을 벤치마킹하여 학생들의 동기를 유발하곤 한다. 매 학기 강의평가에서 '너무 세속적인 성공만을 강조한다'는 지적을 받기도 하지만 그래도 계속할 생각이다.

회계학 중에서는 첫 과목인 회계원리는 가르치기가 가장 힘든 과목이다. 미국에서 강의할 때에는 학생수가 30명 정도여서 숙제를 받으면 틀린 것을 고쳐주고 학습진도를 못 따라오는 학생들은 연구실로 불러 개별적으로 지도하기도 했다. 그러나

3백 명이나 되는 학생을 놓고 대형 강의실에서 수업하다 보니 개인적으로 돌볼 겨를이 없다. 채점한 시험지나 과제물을 돌려줄 때에도 시간이 아까워서 얼굴 한 번 쳐다볼 여유없이 허겁지겁 나눠줘야 하는 서글픈 현실이다.

이런 교육환경하에서는 선생은 열심히 강의준비를 해 강단에서 운명을 거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학생들을 진심으로 성의있게 대함으로써 학생들이 인간적 신뢰를 바탕으로 스스로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학생들과 가급적이면 자주 만나서 대화할 필요가 있다. 나는 수업을 듣는 학생들을 여러 가지 기준으로 소그룹으로 나누어서 그룹별로 술자리를 마련하여 대화를 나눈다. 그리고 학생 신상 이야기를 듣고 이름을 기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주말에는 청계산과 도봉산 등의 서울 근교의 산에 학생들과 함께 오르고 막걸리를 곁들여 저녁을 같이 하기도 한다.

오랫동안 학생들과 술자리를 같이 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참가했던 학생들이 이미 졸업하여 취직을 했고 저녁식사 값을 내겠다고 자청하는 재자들도 많다. 때로는 졸업생을 초청해서 재학생들과 같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기도 한다.

대학교수의 주된 임무는 학생들을 지도하는 것이며 이는 강의실에서뿐만 아니라 강의실 밖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 강의실 밖에서 학생을 만나면 좀 더 솔직하고 따듯




한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그리고 인간적 감동을 줄 수도 있다. 대학 선생은 학생들에게 평가를 받게 된다. 그 평가는 재학생에게도 받게 되지만 특히 졸업생으로부터의 평가가 더욱 중요하다. 졸업생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대학 강의실에서 배운 전공지식과 교수들의 성실성과 인품에 대해서 다시 평가할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

나의 연구실에는 여러 가지 감사패와 공로패가 있다. 그 중에서 가장 귀중한 감사패는 이미 졸업한 경영학과 91학번 D반 제자들이 작년 연말에 찾아와서 전달한 것이다. 감사패에는 학생들이 내가 신조로 삼고 있는 문구에 대한 대답이 있었다. 나는 나의 연구실 문에 "To teach is to touch a life."라는 영어로 된 문구를 붙여 놓았다.

학생들은 감사패에 이 문구에 대한 대답을 적었다. 'To teach'에 대해서는 'To learn'을 'a life'에는 'the life'로 대답했다. 그리고 선생님에 다가오는 손길

'touch'에 대해서는 이를 마음으로 느낀다는 의미의 'feel'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제자들의 감사패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적혀 있었다.

"To learn is to feel the life." 

#### 이만우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조지아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 및 미국 공인회계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고려대 경영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기획예산처 정부투자기관 운영위원, 재정경제부 세계발전심의회,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 자문위원, 한국담배인삼공사 비상임이사, 본지의 편집자문위원, 한국회계학회 부회장, KBS경영평가위원을 맡고 있다. 저서로는 『회계원리』, 『고급회계』, 『세법』, 『회계감사』 등이 있으며 세무 및 재무회계 분야의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였다.